

인문대

제37호 소식

College of Humanities Newsletter

2025년
봄

발행처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주 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장전동)
발행일 2025년 3월 전 화 051-510-1501
발행인 김임숙(학장) 편집인 이은령(부학장)
디자인/제작 예소 전 화 051-582-1226

Contents 02 | 미래내 단상 03 | 교수동정 04 | 인문대 소식 05 | 동문소식 / 학과·연구소 소식 14 | 신간소개



인문대학은 교수들 간의 인적·지적 교류 활성화 및 학문적 소통을 위한 정보의 장을 마련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인 디지털인문학센터와 인문대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번 연수회는 12개 학과 교수 등 교직원들이

해운대 해안길과 기장군 아홉산숲 산책하며 깊이 있는 인문대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펼쳤다.

인문관(부산대학교 구 본관, 국가등록문화재 제 641호)
한국 근현대 건축의 거장인 김종업이 프랑스에서 귀국한 뒤 설계한 최초의 작품





위기의 시대, 분노의 '사면초가(四面楚歌)'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조교수 정종모

2023년 봄, 어딘가에 '우리 시대 인문학의 의미'라는 주제로 짧은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 그 글에서 나는 우리 시대를 '재난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혐오의 시대'로 규정하였다. 두 해가 지난 지금,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쟁과 기후 위기는 여전히 뉴스를 장식하고 있고, 인공지능과 양자역학, 로봇 기술이 결합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정치 상황만 보아도 극단적 분열과 갈등의 언어가 난무하고 있다. 한 마디로 우리 시대는 위기와 변혁의 시대라 할 수 있다. 변혁의 힘이 위기의 촉매제가 아니라, 위기 극복의 돌파구가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동양의 고전과 철학을 공부하면서 위기와 변혁의 지혜와 관련해 먼저 떠오르는 책은 『주역(周易)』이다. 건괘(乾卦)와 곤괘(坤卦)에서 시작하는 『주역』 64괘(卦)의 배열은 자연의 변화와 인간의 삶에 대한 서사를 담고 있다. 그러한 서사의 클라이맥스 가운데 하나가 47번째 괘인 곤괘(困卦)부터 정괘(井卦), 혁괘(革卦)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먼저 곤괘(困卦)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四面楚歌)'의 곤경을 상징한다. 그러나 곤경과 위기는 오히려 성찰과 사유의 계기를 제공한다. 그래서 64괘의 순서를 스토리텔링처럼 설명한 「서괘전(序卦傳)」에서는 "위에서 곤경을 겪는 자는 반드시 아래로 돌아오므로, 원천의 물이 담긴 우물을 상징하는 정괘로 받았다(困乎上者必反下, 故受之以井)"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우물의 의미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성찰을 통해 사유의 원천에 닿으려는 노력을 뜻한다. 우물에서 맑은 물이 샘솟고, 사람들을 그 물로 자신을 기르는데, 그 모습처럼 우리는 곤경에 직면하여 사유의 원천으로 돌아가 새로운 혁신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하여 정괘 다음에는 변혁과 혁명을 뜻하는 혁괘가 이어진다. 「서괘전」에서는 "우물의 도는 변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혁괘로 받았다(井道不可不革, 故受之以革)"라고 하였다. 혹자는 이를 우물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 수리하는 모습으로 읽지만, 나는 나아가 맑은 우물에 자신을 비춰보는 성찰을 통해 창조적 혁신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도 이해한다. 이처럼 곤경은 성찰의 계기를 낳고, 성찰은 변혁을 이끈다는 게 『주역』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이다.

이상과 같은 『주역』의 스토리텔링이 시사하는 바처럼, 위기를 뚫고 변혁의 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성찰과 사유의 힘을 길러야 한다. 작금의 시대를 읽기 위해서도, 그리고 시대보다 한 걸음 앞서 통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자기 성찰의 미학'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컨대, 챗GPT는 정보의 집적과 가공을 넘어서 논리와 사유의 영역에서도 인간의 능력을 압도해 가고 있다. 그러나 챗GPT가 공자(孔子)의 담론과 칸트(Immanuel Kant)의 철학을 아무리 속속들이 꿰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논어(論語)』 읽기가 선사하는 인간다움에 대한 실존적 성찰의 시간을 대신할 수 있을까? 또한, 칸트가 『학부들의 논쟁』을 통해 건네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들이 만들어 나갈 역사의 진보와 인류의 희망에 관한 고민을 제공할 수 있을까?

지난 몇 개월간 우리가 목도하고 있듯이, 미디어와 온라인에서, 거리와 광장에서 '자기 성찰'의 시간이 탈각된 혐오와 분노의 언어가 우리 일상은 물론 정치와 사법의 영역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혐오와 분노는 개인의 성찰과 사유를 옹아매는 족쇄이자, 공동체의 소통을 가로막는 장벽이다. 로마 제국의 사상가 세네카는 『분노에 관하여』에서 소크라테스의 위대함이 분노를 극복함으로써 소통하고 성찰하는 인격을 보여준 것에 있다고 보았다. 세네카의 말을 음미하면서, 우리 사회가 분노의 사면초가를 뚫고 구성원 저마다 '자기 성찰'의 우물을 찾아갈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분노가 우리를 사로잡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분노를 사로잡아야 한다. 분노의 징후들을 정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 얼굴을 편안하게 하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고, 걸음걸이를 늦추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감정도 점차 외적 신호들을 따라가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화나면 목소리가 낮아지고 말수가 줄었다. 마치 자신의 움직임을 막고 있는 듯했다. 그러면 친구들이 책망의 의미로 그의 몸을 꼭 붙잡곤 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숨겨진 분노에 대한 친구들의 질책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많은 이들이 그가 화났다는 것을 알아서도 화난 것을 느끼지는 못했으니, 어찌 기쁘지 않았겠는가?"



◆ 정년퇴직 교수



불어불문학과 윤애선

윤애선 교수는 37여년에 이르는 본교 재직기간 동안 후학 양성 및 프랑스 언어학 연구에 기여한 바가 크다. 또한 이론언어학 분야에 자연언어처리 방법론을 도입한 국내 1세대 연구자로 융합연구로서 전산언어학 및 인지과학 연구 및 개발에 기여하였다. 다수의 논문과 도서 간행을 통해 학자로서 부산대학교의 이름을 드높였다. 2012년에는 '인문사회 기초연구 우수성과 인증'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4년에는 '국어정보처리 시스템 경진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2016년에는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노어노문학과 이용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노어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1995년 8월 논문 "현대 노어의 新語 語彙構造 연구 : 名詞를 중심으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0년 부산외국어대학교 노어과 조교수를 거쳐 1995년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부산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 논문으로 "국어와 러시아어 동사의 조어적 대조 분석"(공저)(2002), "러시아어 단어 기호의 명명과정 연구"(2008), "러시아어 다의어 의미 확장 연구"(2011), "러시아어 조어 형성소의 명명과정 연구 - -ник, -щик, -тель을 중심으로-"(2012)"한국인 러시아어 학습자와 러시아 여성 화자의 러시아어 모음의 실험음성학적 대조분석"(2019), "한국인 러시아어 학습자와 러시아 여성 화자의 러시아어 /j/계열의 실험음성학적 대조분석"(2020) 등이 있다.

◆ 신입 교수



불어불문학과 고길수

고길수 교수는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박사수로 후 프랑스 파리7대학에서 2010년 "La syntaxe du syntagme nominal et l'extraction du complément du nom en coréen : description, analyse et comparaison avec le français"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와 동덕여대에서 강사로 출강하며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울산대학교 프랑스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 논문으로 "프랑스어 접속법문의 형태 연구", "프랑스어 도치문의 형태-통사 속성과 유형 연구", "형태 중심의 프랑스어 문장 분석을 위한 문장형태 분류" 등이 있다.



한문학과 홍진옥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한문학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기초학문 분야 학문후속세대·우수박사학위논문 연구지원사업 및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2년 '한국한문학회'로부터 학술논문상을 수상하였다. 2016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한국본/중국본 집부(集部) 도서를 조사하고 해제를 작성하였고, 2017년 한국고전번역원의 역사문헌 번역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보인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번역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서울대학교, 충북대학교, 울산대학교에서 강의하였다. 2024년 3월부터는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K학술 확산연구센터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며 '한국어문학의 심화와 확산'을 주제로 강의를 제작하는 한편 국내외의 우수 연구진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논문으로는 "유구 세자 살해설과 김려의 <유구왕세자외전>," "『하고관외사(寒阜觀外史)』본 『석담일기(石潭日記)』 고찰" 등이 있다.



철학과 노형래

서강대학교 철학과에서 철학을 전공하였고, 미국의 Arizona State University에서 철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University of Iowa의 철학과에서 "In Defense of Exploitable Information"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립순천대학교 철학과에서 부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 논문 중 국제학술지 논문으로 "Interpreting ordinary uses of psychological and moral terms in the AI domain"(Synthese), "Shannon-inspired information in the clinical use of neural signals concerning post-comatose patients. Philosophical Problems in Science(Zagadnienia Filozoficzne w Nauce)"가 있으며, 국내 논문으로는 "우리 마음이 컴퓨터 프로그램될 수 있을까," "탈인간중심주의적 의미론으로서의 리터럴리즘" 등이 있다.

◆ 인문대 교수 연구년 및 장기파견

박소영	국어국문학과	1년	2024.9.1. ~ 2025.8.31.
이재봉	국어국문학과	1년	2025.3.1. ~ 2026.2.28.
류민화	일어일문학과	6개월	2025.3.1. ~ 2025.8.31.
이재성	영어영문학과	1년	2024.9.1. ~ 2025.8.31.
전지현	영어영문학과	1년	2025.3.1. ~ 2026.2.28.
김승룡	한문학과	1년	2025.2.17. ~ 2026.2.16.
강은지	언어정보학과	1년	2025.2.1. ~ 2026.1.31.
이종봉	사학과	1년	2025.3.1. ~ 2026.2.28.
조창오	철학과	1년	2025.3.1. ~ 2026.2.28.
이창희	고고학과	1년	2024.9.1. ~ 2025.8.31.

◆ 인문대 보직자 명단(2025. 3. 1. 기준)

김임숙 학장	인문대학	2024. 3. 1.
이은령 부학장	인문대학	2024. 3. 1.
김태우 학과장	국어국문학과	2024. 2. 1.
윤순일 학과장	중어중문학과	2025. 3. 1.
하재필 학과장	일어일문학과	2025. 3. 1.
김용규 학과장	영어영문학과	2025. 1. 15.
이송이 학과장	불어불문학과	2024. 3. 1.
서은주 학과장	독어독문학과	2025. 1. 15.
황서경 학과장	노어노문학과	2025. 3. 1.
이준규 학과장	한문학과	2025. 3. 1.
김태호 학과장	언어정보학과	2025. 3. 1.
배해정 학과장	사학과	2025. 2. 5.
박효엽 학과장	철학과	2024. 3. 1.
양은경 학과장	고고학과	2024. 7. 1.
권순복 전공주임	인지과학 전공	2021. 3. 1.

◆ 교내 보직교수 명단

인성기	교양교육원장	2024.5.20.~2026.5.19.
이선진	교무부처장	2024.5.20.
임상택	박물관장	2024.11.18.~2026.11.17.

◆ 2024학년도 전기 박사학위 수여자 명단

- 신윤주(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지도교수 : 이재봉]
김문집 소설 연구
- 이시성(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지도교수 : 이재봉]
반공 이데올로기와 국가폭력 기억서사 연구
-개발동원체제하의서사적재현을중심으로-
- 송상(국어국문학과 고전문학전공) [지도교수 : 한태문]
연행록을 통해 본 中國의 祠廟에 대한조선지식인의인식연구
- 고아진(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지도교수 : 권경근]
제주어 /:/의 실현 양상 -사회적정보와관련하여-
- 이항미(영어영문학과 영어학전공) [지도교수 : 전지현]
L2 학습자의 영어 정체성과 영어 말하기 성과 간의 연관성 연구:
동기와 투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 백다윤(영어영문학과 영어학전공) [지도교수 : 장경철]
영어 지각동사의 부정사 보문 구조
- 이지현(영어영문학과 영어학전공) [지도교수 : 정병언]
주디스 버틀러의 공동거주의 윤리
-현대극에 나타난 프레카리티와 실천적 연대

- 조유정(독어독문학) [지도교수 : 인성기]
동일성 사고의 해체와 초극성
-니체의 후기 철학으로 본 클라이스트의 희곡과 노벨레
- 김은진(노어노문학과 노문학) [지도교수 : 최동규]
『하지 무라트』에 나타난 톨스토이의 생명 사상
- 이강석(한문학과 문학전공) [지도교수 : 김남이]
『東野彙輯』 研究 -이야기구성과지향을중심으로-
- 이성훈(고고학과 고고학전공) [지도교수 : 김두철]
가야의 무기와 무구 연구

◆ 디지털인문학센터 신설

2024년 5월부터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하나인 「디지털인문학센터 설립」을 위해 준비한 끝에 2025. 3. 1.자로 인문대학 부속시설로 디지털인문학센터를 신설하고 센터장을 불어불문학과 이은령 교수로 임명했으며, 2025학년도 상반기 불어불문학과 신입교수도 디지털인문학센터를 겸직하여 함께 추진한다. 현재 디지털인문학센터는 교수연구동 105호 행정실을 두고 사무원 1명을 채용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

◆ 제2회 효원인문DAY 개최

부산대학교 인문대학(학장 김임숙·일어일문학과 교수)은 2025년 1월 2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성학관과 인문관에서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2회 효원 인문 DAY」를 개최했다. 인문대학만의 특색으로 12개 학과 교수 모두가 참여한 인문특강과 12개 학과 전공 체험부스는 지난 1회 행사보다 더욱 더 풍성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인문관에서 이루어진 학과별 체험부스는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여 초·중·고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로 이어졌다.



◆ 기초학문진흥 '디지털인문학' 포럼 개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인문학의 통섭과 융합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대학은 미래 사회를 대비해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인문학의 교육과 연구 방법에도 디지털 도구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부산대학교 인문대학은 학부 학생들이 전공을 심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자 <디지털인문학센터>를 설립하였다. 디지털인문학센터는 인문대학생들에게 필요한 디지털인문학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디지털인문학 연구를 지원하여 초학제적 연구와 교육기반을 마련하고자 <디지털인문학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이 분야를 선도해온 전문가를 초청하여 디지털인문학 교육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사학과 변선경 동문 신라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임용



부산대학교 사학과 변선경 동문은 부산대학교 사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이탈리아 피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부산대학교 사학과 강사 및 경북대학교 사학과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하였으며, 2024년 10월 1일자로 신라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주요 연구로는 「성인 만들기와 '신성한 여성들': 중세 말 근대 초 읍도파의 여성 서사 활용 전략」(2022), 「경건한 군주와 마귀 들린 소녀 - 17세기 피렌체의 국가교회 관할권 갈등에 관한 연대기 서사 분석」(2024)이 있다.

◆ 고고학과 심현철 동문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임용



심현철(02학번) 동문은 부산대학교 고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고고학과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재직하며 신라 고분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였으며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강사, 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겸임교수로서 후학 양성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新羅 積石木槨墓의 구조와 축조과정」, 「新羅 積石木槨墓의 墳形과 封墳設計原理」, 「三國時代 高塚의 封墳 盛土法 考察」 등이 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학교 및 학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고학과 이명훈 동문 2024년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최종 합격



이명훈 동문(07학번)은 부산대학교 고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고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24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6급 상당)에 최종 합격을 하여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 고고학계를 선도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고고학과는 매년 학예연구사를 지속적으로 배출해 내고 있으며, 고고학·역사학 및 한국의 문화 콘텐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재직 기관 및 학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고학과 박지연 동문 2024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5급 전문(문화재) 직원 최종 합격



박지연 동문(석사 16학번)은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5급 전문(문화재) 직원에 최종 합격을 하여 현재 LH토지주택박물관에 재직하고 있다. 한국 고고학계를 선도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고고학과는 매년 학예연구사를 지속적으로 배출해 내고 있으며, 고고학·역사학 및 한국의 문화 콘텐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재직 기관 및 학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활동을 통해 재직 기관 및 학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학술제 및 선배초청 특강

2024년 12월 6일 국어국문학과 학술제를 시행하였다. 차지 학술동아리인 '귀성문학회', '배달말연구회', '우듬지(고전문학연구회)', 그리고 잡지사 '가가가가'가 2024년 한 해 동안 활동한 내용을 공유하고 논문과 잡지, 작품 등 성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리고 학술제 종료 후 선배초청특강 시간을 가졌다. 한국공항공사에 근무 중인 16학번 박종하 졸업생과 2023년 부산시 임용고사 차석인 전희운 졸업생이 참석하여 공기업 입사와 임용고사라는 주제로 취업 특강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024년 동계 해외 도전과 체험



국어국문학과 소속 학부생 7인과 강사 이옥희 선생님이 2025년 1월 5일부터 1월 15일까지 태국 부라파 대학교에서 '국문학과 함께 시대별로 배우는 한국 문화와 언어'를 주제로 동계 해외 도전과 체험을 실시하였다. <한국어 이름 키링만들기>, <한국 수목화를 통한 부채 만들기>, <한국전통 탈 만들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일상회화 수업> 등의 한국 전통문화 체험과 1900년대 후반 한국 현대사 교육 등을 통해 한국에 관심있는 태국의 학생들에게 한국 언어와 문화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BK 제2회 한국어문학 전국 학술 캠프

국어국문학과 BK사업단 '트랜스-로컬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에서는 2025년 2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 <제2회 한국어문학 전국 학술 캠프>를 실시하였다. 부산대 주최로 고려대, 성균관대, 전남대, 강원대, 선문대, 연세대,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BK사업단/팀이 함께 학술 캠프를 치렀으며, 총 8개 대학 7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첫째 날에는 '탈경계의 한국어문학'이라는 기획 주제 및 다양한 자유 주제로 학술 발표를, 둘째 날에는 강명관 교수(한문학과 명예교수)를 모시고 "국문학 연구, 이제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특강을 진행하였다. 특강 이후에는 로컬 탐방 프로그램으로 요산김정한문학관-범어사 답사가 이어져, 부산의 문학과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어중문학과

국내문화탐방 실시



중어중문학과에서는 10월 31일 ~ 11월 1일(1박 2일) '국내문화탐방'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 생활 문화와 근대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인천 차이나타운 일대를 탐방함으로써 한·중 교류 역사를 이해하는 등 전공 지식의 저변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1, 2학년 재학생 중심으로 11명이 참가하였으며, 참가한 학생들은 세 팀으로 나뉘어 팀별 주제에 따라 현지 조사 및 자료 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11월 21일 중어중문학과 신입생 캠프 행사에서 발표하였다. 이 행사는 2024학년도 전공특화 비교과 PNU Major+(신입생 전공능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2024학년도 중어중문학과 신입생 캠프 개최

중어중문학과에서는 2024학년도 전공특화 비교과 PNU Major+(신입생 전공능력)사업의 일환으로 11월 21일 '2024학년도 중어중문학과 신입생 캠프'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국내문화탐방 발표, 학술 동아리(論花) 발표, 졸업생(정재우 18학번)초청 특강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신입생들은 이 행사를 통해 앞으로의 대학 생활을 설계하는 데 있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공간정보융합기술을 활용한 중국인문지리(캡스톤디자인)' 수업 (지도교수: 최진아) 산출물 발표



중어중문학과에서는 2024년 12월 2일 부산관광공사와의 협력으로 '공간정보융합기술(QGIS)을 활용한 중국인문지리' 수업의 산출물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참가한 4개의 팀은 '사천성 매운맛 지도', 'tian-wan(타이완 디저트 지도), '화양연화(타이완 드라마 지도), '유럽 밖은 상해(상하이 근대건축물 지도)'라는 팀별 과제명 하에 기획 의도, 지도 구현 및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일어일문학과

교환 프로그램 성과 교류회 개최



일어일문학과에서는 10월 30일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환 프로그램 성과 교류회를 개최하였다. 국제처 교환 프로그램, 일본 문부성 교류사업 등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일본, 유럽 등지로 유학을 다녀온 학부생

7명을 발표자로 초청하여, 합격 후기부터 현지 경험담까지 생생하고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였다. 최근 높아진 관심만큼 재학생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 낸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전공 및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한일 유적 탐방 프로그램 실시

일어일문학과에서는 2025년 1월 중 국립대학 육성사업 전공 비교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일 유적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1학년 재학생으로 구성된 3개 팀이 참여하였으며, 팀별로 부산 소재 일본 관련 유적지를 다녀왔다. 전공 이해도 향상과 유대감 증진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으로, 결과 보고서 및 참가자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프로그램의 목적성에 부합하여 운영된 프로그램임이 입증되었다.

일본어 회화 집중 캠프 실시



일어일문학과에서는 2025년 1월 중 국립대학 육성사업 전공 비교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어 회화 집중 캠프를 실시하였다. 이번 캠프는 1학년 재학생의 일본어에 대한 흥미 고취 및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운영한 프로그램으로, 일본인 강사를 초청하여 회화 지도에 집중하였다.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하여 학습 효율성이 높았으며,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은 프로그램이었다.

◆영어영문학과

2024학년도 영어영문학과 동문 장학금 수여식



영어영문학과는 2024년 8월 23일 『2024년 영어영문학과 동문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매년 영어영문학과는 학부와 대학원 각 학년의 성적우수자를 선정하여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4학년도 영어영문학과 드라마 정기공연



영어영문학과 소속 학부 연극동아리인 드라마가 2024년 8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3일간 일터소극장에서 '누가, 누구?'로 여름 정기공연을 개최했다. 영어영문학과 드라마는 40여 년의 전통을 가진 학부 연극 동아리로서 기획, 연출, 무대장치 등 공연제반사항을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4학년도 영어영문학과 새벽소리 정기공연



영어영문학과 소속 학부 동아리인 새벽소리가 2024년 9월 8일 인터플레이에서 여름 정기공연을 개최했다. 영어영문학과 대표 동아리인 새벽소리는 매년 학과 및 인문대와 부산대학교 학우 전체를 대상으로 영문과 새내기 맞이 공연, 여름 정기 워크숍, 영문인의 밤 공연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4학년도 영어영문학과 영문인의 밤 개최



영어영문학과는 2024년 11월 21일 재학생과 신입생 간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2024년 영문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영문인의 밤에서는 수강신청 노하우, 동아리 활동 추천 등 선배들의 학교생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바탕으로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기반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불어불문학과

영남권 프랑스어 대회 참가



불어불문학과 재학생 4명은 10월 10일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열린 '영남권 프랑스어 대회'에 참가하여 은상을 수상하였다. 이 행사에는 학과교수 2명을 포함하여 학과 재학생 등 총 20명이 참가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불문인의 밤 개최



10월 31일 불어불문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모여 불문인의 밤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프랑스 보르도 대학교 최옥경 교수님의 특강도 함께 이루어져 큰 호응을 받았다.

겨울방학 DELF 특강



1월 6일부터 16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살로메 선생님을 모시고 프랑스어 DELF 집중강좌를 운영하였으며, 불어불문학과 재학생 10명이 참여하여 전공 능력에 큰 도움을 얻었다.

◆ 독어독문학과

독일이말하기대회



5분 내외의 다양한 자유 주제를 독일어로 상황극을 만들어 발표하는 프로젝트. 독일의 "Der Wert des Echten in einer trendbewussten Welt"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유행에 집착하는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삶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외 한국과 독일의 문화적 차이, 독일의 옥토버페스트, 독일 사회와 정치적 현황에 따른 교육적 경제적 측면, 독일유학생활, 독일의 환경 등 다양한 주제의 상황극을 연출했다.

독일역사영화상영회



독일의 역사를 다룬 영화 [존오브인 터레스트]를 관람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영화를 탐구하고 분석하며 아우슈비츠 주변 지역의 사람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접해보았다.

한독문화예술교류탐방



통영의 현대문화, 현대미술, 현대음악 답사. <한독문화예술교류탐방>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역사를 탐방하고 독일과의 문화와 예술의 교류 역사비교를 통해 한독문화교류의 확장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통영의 현대문화 소설가 박경리 작가 기념관, 색체의 미술가 전혁림 미술관, 음악계의 거장 대한민국 출신의 독일 현대음악계의 거장 윤이상 작곡가의 기념관 등을 방문하여 독일과 한국과의 문화적 예술적 접점과 앞으로의 다양한 교류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2024학년도 2학기 독어독문학과 탄뎀행사



독일어권 유학생과 함께 한국과 독일의 언어와 문화를 서로 교류하기 위해 탄뎀행사를 개최하였다. 학기 동안 총 10회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회화자료와 대화 주제를 통해 소통하며 한독교류를 진행하였다.

독일문화예술제



독일어권 유학생과 함께 한국과 독일의 언어와 문화를 서로 교류하기 위해 탄뎀행사를 개최하였다. 학기 동안 총 10회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회화자료와 대화 주제를 통해 소통하며 한독교류를 진행하였다.

독일크리스마스행사



프로젝트시상식, 자축공연, 선물교환 등 독문인 파티. 매년 한 해의 마무리 행사를 독일식 크리스마스인 [바이나흐텐(Weihnachten)]을 통해 다함께 한해를 마무리하며 돌아보고, 축하하는 시간을 보냈다. 원어민 강사님과 학생들이 함께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했다. 24년도 1년의 성과교류, 시상식, 선물교환식 등 새해 2025년도를 위한 새로운 목표를 함께 교류하였다.

◆ 노어노문학과

2024학년 노어노문학과 - 톰스크국립대학교 학생 간 언어교류



부산대학교 노어노문학과 학생들과 러시아 톰스크국립대학교 역사 및 정치학부 국제지역학 전공 학생들의 줌(Zoom)을 통한 말하기·글쓰기 교류 프로그램으로, 노어노문학과 이용권 교수님의 지도하에 진행되

었다. 2학기 동안 총 3번의 모임을 가졌으며, '본인 나라의 겨울철 액티비티 소개', '내가 좋아하는 예술 분야', '자유 주제를 중심으로 교류하였다.'

2024학년 노어노문학과 노문인의 밤 및 이용권 교수님 퇴임식

노어노문학과 연례행사로, 학부생과 교수님이 한자리 모여 1년 동안 학과에서 있던 행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동아리 활동 보고, 연수 프로그램 후기 공유, 전공 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노어노문학과 이용권 교수님의 기념 특강 및 퇴임식을 진행하고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하였다.



제2회 효원인문데이 특강 및 전공 체험 진행

부산대학교 인문대학에서 진행되는 '제2회 효원인문데이' 행사에 참여하여 전공 특강 및 전공 체험을 진행했다. 노어노문학과 학과장님인신 양영란 교수님께서 '노어노문학으로의 초대'를 주제로 러시아와 러시아어권의 현황을 소개하고, 러시아어학, 러시아문학, 러시아문화 및 지역학 관련 전공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셨다. 이후 러시아 펜글씨 체험을 통해 참여자들이 업서에 직접 러시아어 필기체를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한문학과

2024 한문학과 추계학술답사(2024.10.30.~11.1.)



한문학과에서는 2박 3일(10월 30일 ~11월 1일) 일정으로 경상북도 안동으로 2024학년도 추계학술답사를 다녀왔다. 만휴정, 월영교, 하회마을, 병산서원, 농암종택, 도산서원 등의 문화유산의 현장을 체험하고, 저녁에는 선배와 후배, 교수님들과 함께 학교 생활, 진로, 교우 관계 등 수업 시간에 다하지 못했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한문학과 구성원들이 모두 모여 단합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한문학과 BK21 FOUR 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참가(2025.1.15.~1.18.)



한문학과 BK21 FOUR 사업단에서는 3박 4일(1월 15일~1월 18일) 일정으로 香港大學 주최 <제14회 漢字與漢文教育國際研討會>에 참가하였다. 참여 대학원생 중 4명이 대표로 아래의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 ① 양방(박사과정), 「청(淸)자와 탁(濁)자의 변천 및 의향 연구」
- ② 조현석(박사과정), 「조선조 도설경학의 한문교육방법론에 관한 연구」
- ③ 배태수(석박사통합과정), 「石谷 李圭暎의 『大學』에 대하여」
- ④ 정래원(석사과정), 「백담시파 운회매(輪回梅) 향유 양상 고찰」

학술대회 주제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 방향을 모색함은 물론 발전 논문을 발전시켜 추후 국제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024학년도 제2회 경북대·경상대·부산대 한문학과 대학원 교류 학술 세미나(2025.2.3.~2.4)



2024년 제2회 경북대·경상대·부산대 한문학과 대학원 교류학술 세미나가 1박 2일(2월 3일~4일) 일정으로 인문관 501호(시습관)에서 개최되었다. 경상권 국립대학 한문학과와의 연구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경북대·경상대·부산대 교수 및 대학원생 6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뤘다. 제1회 교류 학술세미나는 경상대에서 진행된 바 있다.

2024학년도 동계 한문학과 대학원 세미나 - 효원한문학회(2025.2.19.)



한문학과에서는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효원한문학회'라는 이름으로 대학원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2024학년도 동계 세미나는 2025. 2.19.(수) 인문관 501호에서 개최되었다. 1부 자유발표, 2부 연구노트, 3부 학업계획 및 총평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한 학기 동안의 연구 성과가 집약된 현장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 언어정보학과

2024학년도 졸업생 초청 특강 개최

언어정보학과는 11월 9일(토) 졸업생 초청 특강을 개최하였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 검사로 재직 중인 12학번 진한샘, 전국 지역인재 7급 행정직군에 합격한 18학번 김아연을 비롯해 총 4명의 졸업생 선배들이 특강자로 참여하여 진로를 설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32명의 재학생들에게 자신들의 경험과 실질적인 노하우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2024학년도 지역 산학협력 관련 기관 탐방 및 언어 조사 실시



언어정보학과는 2024학년도 지역 산학협력 관련 기관 탐방 및 언어 조사를 실시하여 2월 5일(수) 울산대학교 한국어처리연구실을 방문하였다. 울산대학교 옥철영 교수님이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여 Utagger를 이용한 언어 분석 및 응용 과정에 대해 습득하는 등 진로 설계 및 전공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

◆ 사학과

2024학년도 사학과 진로·취업 특강 개최



2024학년도 전공특화 비교과 PNU Major+(진로 취업) 사업의 일환으로 신입생 대상 프로그램 '사학과 선배들은 졸업하면 뭐 하지?' - 사학과 신입생을 위한 진로·취업 특강' 프로그램, 기존 재학생 대상 프로그램 '사학과 졸업하면 뭐 하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금번 프로그램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사학과를 졸업하여 취직에 성공한 졸업생들을 강사로 초빙하였으며, 각각 양산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최영문 선생님(사학과 02학번), 신라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변선경 선생님(사학과 08학번)이 특강을 진행하였다.

2024학년도 사학과 추계학년답사 실시



2024학년도 전공특화 비교과 PNU Major+(전공능력) 사업의 일환으로 '사학과 신입생과 함께 떠나는 역사기행' 프로그램에서 경상북도 경주시 일원으로 답사를 실시하였다. 금번 답사는 전임교원 2명, 대학원생

1명의 인솔 하에 학부생 19명이 참석하였으며, 감은사지, 불국사, 국립경주박물관, 동궁과 월지, 첨성대, 대릉원 등의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2024학년도 '글을 잘 써야 역사가 보인다' 프로그램 개최



2024학년도 전공특화 비교과 PNU Major+(전공능력) 사업의 일환으로 '글을 잘 써야 역사가 보인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역사학 뿐만 아니라 인문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글쓰기와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 전달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으며, 각각 '졸업논문 잘 쓰는 법', '알아두면 쓸데많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2024학년도 '사학과 대학원,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개최



2024학년도 전공특화 비교과 PNU Major+(전공능력) 사업의 일환으로 '사학과 대학원,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사학과 학부생들의 대학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불식시켜 대학원 진학을 하나의 진로 방향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학과 조교의 대학원 입시 및 교육과정 설명과 실제 대학원 재학생들의 진솔한 대학원 생활 경험담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다.

2024 대학 및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지역민을 위한 인문 아카데미 - 길의 도시, 부산' 개최



사단법인 부경역사연구소와 함께 2024 대학 및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민을 위한 인문 아카데미 - 길의 도시, 부산 -'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5차례의 역사강좌와 1차례의 현장 답사로 구성되었으며, 사학과 전임교원 및 부경역사연구소 연구원이 프로그램 진행하였다.

제7회 피란수도 부산 논문공모전 입상



부산시가 '피란수도 부산' 관련 미래 세대 전문연구자를 양성하고,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제7회 피란수도 부산 논문공모전> 학생 및 일반시민 분야에서 사학과 석사과정 최진우(202380120) 학생이 우수상, 사학과 학부생 표건(202004130), 민현기(202104112), 우석채(202104123) 학생이 장려상으로 입상하였다.

◆ 철학과

2024학년도 철학과 학술답사



2024학년도 철학과 학술답사는 9월 6일부터 9월 7일 동안 “조선 성리학과 안동지역”이라는 주제로, 안동지역의 서원(도산, 병산)과 유학과 관련한 유적지를 방문한 후, “조선 유학과 안동지역 성리학자 탐구”라는 학술발표로, 성리학의 주요사상과 철학적 지식을 관련시켜, 현대에서 성리학이 가지는 의미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철학과 PNU Major+(진로취업) 제3회 효원논리대제전



11월 6일부터 11월 8일 동안 개최된 “철학과 PNU Major+(진로취업) 제3회 효원논리대제전”은 작년에 이어서 논리학특강, 논리공부법특강, 토론경진대회, 효원비판대를 개최했고,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딜레마토크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철학과 학생들의 재기발랄한 효원논리대제전 홍보 카피를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했다. 특히 LEET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메가로스쿨 일타강사진의 언어이해, 추리논증 과목의 LEET 특강이 진행되었다. 철학과 본과 학생보다 타과 학생들이 더 많이 신청한 토론경진대회의 경우, 행사 전부터 토론경진대회 주제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설문조사에 토론경진대회의 확대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다.

SAM분야 학술행사 “위기의 시대, 인간의 조건을 다시 생각한다.”



12월 14일에 인덕관에서 2024 철학연구회 추계 학술대회가 ‘위기의 시대에 인간의 조건을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동양철학, 사회철학, 과학기술철학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복합적인 위기국면에 처해 있는 우리 사회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위기 속 인간의 조건들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었고, 특히 ‘학문후속세대 분과 발표’를 통해 부산대와 성균관대의 학문후속세대(대학원생)에게 연구자로서 자존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2024학년도 2학기 부산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콜로키움 지원사업



2023학년도에 이어서 철학과 대학원생들의 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해, 강사선생님과 함께 하는 논문 컨설팅 사업인 “부산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콜로키움”이 11월 9일에, 2월 12일에 2회에 걸쳐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철학과 대학원 콜로키움은 단순 발표가 아니라, 전공분야 강사 선생님의 논평을 통해서 자신의 논문 역량을 전문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고, 학술지 논문 게재 등으로 실적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철학과 BK21 복합위기대응철학 융합인재 교육연구팀 소식

▶ 부산광역시립 명장도서관 업무협약 체결



철학과 BK21 복합위기대응철학 융합인재 교육연구팀은 2024년 10월 15일에 철학 특성화 도서관인 부산광역시립 명장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철학 관련 프로그램 및 강좌를 개최하고, 강사진 파견, 철학 관련 콘텐츠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하여, 부산지역의 철학 및 인문학 교육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명장도서관에서는 25년 3월 중 관내 초중고생 대상으로 “대학원생이 강의하는 인문학과 철학” 특강 프로그램을 철학과 BK21 교육연구팀과 진행예정이다.

▶ <세계철학의 날> 위기의 시대를 가로지르는 용기와 희망의 철학



11월 21일에 “충곡의 철학”의 20만 유튜브인 이충녕 작가의 “위기의 시대를 가로지르는 용기와 희망의 철학” 토크쇼가 명장도서관과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인기 유튜브계 한빛관을 가득 채운 토크쇼에서 이충녕 작가는 위기 시대에 더욱 빛나는 철학이 갖는 의미를 자신의 독일 유학 체험과 관련해서 전했다.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질문과 고민에 적극 응했다.

▶ 2024학년도 2학기 BK21 교육연구팀의 주요 활동



2024학년도 2학기 BK21 교육연구팀의 주요 활동으로는 1. BK21 학부대학원 연합대회 2. BK21 대학원 수업내 위기대응이론가 철학 세미나 초청 특강(외부전문가 초청특강 5회) 3. BK21 위기이론가 초청특강 4. 대학원생 소모임 활동 지원사업 등이 있었다. 특히 참여 대학원생들의 위기문제에 대한 학술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원생들이 희망하는 초청 강사진을 섭외한 위기이론가 초청 특강으로 “한국사회와 위험”(홍성태 상지대 교수)과 “복합위기에 대한 아도르노의 철학적 대응”(이하준 한남대 교수)이 개최되었다. 무엇보다도 2월 14일에 부산대학교에서 개최한 제5회 영남권 대학원 연합학술대회에서는 국립경상대학교, 경북대학교 대학원생이 참여하여, 준비한 논문을 발표하고, 논평을 통해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 고고학과

저명학자 초청 단기 집중 특강 개최



고고학과에서는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학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기 위해 우수한 국내외 저명학자를 모시고 저명학자 초청 단기 집중 특강을 개최하였다. 11월 21일에는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国立歴史民俗博物館) 다카타 칸타(高田貴太) 교수를 초청하여 <한반도에 서 바라본 고대 일본> 특강을, 11월 27일에는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성춘택 교수를 초청하여 <선사 수렵채집사회의 인구구성과 변동> 특강을, 12월 3일에는 동북아역사재단 박선미 연구위원을 초청하여 <Rethinking Korea study Beyond Borders: Interregional Historical Perspectives> 특강을 각각 진행하였다.

2024학년도 2학기 고고학과 SAM분야 학부·대학원 연계 Colloquium <신라 왕경> 개최



고고학과에서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및 최신 연구정보 교류를 위해 SAM 분야 학부·대학원이 공동 참여하는 Colloquium을 12월 18일 개최하였다. Colloquium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황인호 소장을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신라 왕경 연구 성과에 대한 학문적 저변이 확대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4학년도 고고학과 추계 가야권·경주권 정기학술답사 실시

고고학과에서는 2024학년도 고고학과 추계 가야권·경주권 정기학술답사를 9월 30일~10월 2일 2박 3일간 진행하였다.

1학년 학생들이 중심이 된 가야권 정기학술답사에는 학부생 38명, 교원 1명, 대학원생 1명 등 총 40명이 참가하여, 김해 대성동고분군, 합천 옥전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등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 고분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립김해박물관, 발굴 조사 현장 등을 견학하며 유적·유구·유물을 실견하며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2학년 학생들이 중심이 된 경주권 정기학술답사에는 학부생 32명, 교원 1명, 조교 1명, 대학원생 2명 등 총 36명이 참가하여, 경주 대릉원, 노서동·노동동고분군, 월성 발굴 조사 현장 등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 권역의 유적·유구·유물을 실견하며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실을 벗어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답사를 통해 전공 역량 강화는 물론, 학우 간, 사제 간 유대감을 높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동계방학기간 중 현장실습



고고학과에서는 동계방학기간 중 여러 학생들이 발굴현장 및 연구원 등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였다. 이번 동계방학기간에는 (재)울산문화재연구원의 울산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 조사 현장에서 2명, 국가유산진흥원 매장유산국비발굴단의 경주 권역 소규모 발굴조사현장에서 2명이 실습을 진행하여 현장 실무경험을 쌓았다.

2024 세계국가유산산업전 <과거를 빛는 손길: 고고학자의 작업실> 참가



고고학과에서는 [글로벌대학30] 2024년도 단과대학 지산학연 협력 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가 주최하고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가 주관하는 2024 세계국가유산산업전(HERITAGE KOREA 2024)에 「동아시아 SAP 융합 인재 양성 사업팀(팀장 이창희 교수)」과 공동으로 참가하여 「과거를 빛는 손길: 고고학자의 작업실」 부스를 운영하였다. 부스 운영을 통해 연구 성과를 학계에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고고학적 연구와 금속유물 제작기법 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학문과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관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역 사회·산업계·학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산업전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지산학연 협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부산대학교·경북대학교 4단계 BK21 교육연구팀 공동 학술포럼 개최



「동아시아 SAP 융합 인재 양성 사업팀(팀장 이창희 교수)」에서는 「경북대학교 인류세 기술·지식·물질 네트워크와 문화 큐레이팅 전문가 양성 교육연구팀(팀장 이성주 교수)」과 공동으로 2025 경북대·부산대 학술포럼 사람과 사물의 네트워크를 2025년 1월 25일 경북대학교 인문한국진흥관 B103에서 개최하였다.

학부생, 석사과정생, 석사졸업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본 학술대회에서는 신라 고분 출토 유리기,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태안 마도 3호선, 구리 토평동 유적의 환구, 소가야 다곽식 고분, 신석기시대 남해안 결함식낙시, 대구 팔공산 진인동 초기청자 요장, 5세기대 김해·부산지역 토기에 시문된 파상문 등 다양한 주제 발표를 통한 학술 교류의 장이 펼쳐졌으며, 이를 통해 국내 연구 교류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고고학과 장슬지 박사과정생 2024학년도 BK21 PNU-STAR 선발



「동아시아 SAP 융합 인재 양성 사업팀(팀장 이창희 교수)」 소속 참여대학원생으로 재학하고 있는 장슬지 박사과정생이 2024학년도 BK21 PNU-STAR로 선발되었다. PNU-STAR는 대학원 과정 연구성과,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등 관련 경험을 기반으로 성과 포상을 통한 대학원생의 의욕고취 및 핵심역량 개발 도모를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시상식은 2025년 1월 23일 제3회 GRAND-PNU Day PNU 대학원생 연구성과 교류회에서 진행되었다.

◆ 인문학연구소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4년 인문도시지원사업 선정
- '인문도시, 창원: 생태와 통합의 가치를 꽃피우다'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4년 인문도시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인문학연구소에서는 2024년 9월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인문도시, 창원: 생태와 통합의 가치를 꽃피우다'라는 주제로 창원의 인문자산과 문화적인 특색을 바탕으로 한 인문 연구와 인문 강좌, 인문 체험, 인문주간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인문도시 창원이 생태와 통합의 가치를 펼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2024년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국내학술대회 개최
- '세계문학과 근대 그리고 외국어의 위치'라는 주제로



인문학연구소 세계문학과 트랜스글로시아 연구팀에서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세계문학과 근대 그리고 외국어의 위치"라는 주제로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이효석 인문학연구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아일랜드어와 외국어의 개입-마틴 오 카인의 『무덤의 흙』 속 민중의 일상어의 경우.(발표: 이효석, 토론: 강민건)', '근대의 말하기 방식과 새로운 기록문장의 형성.(발표: 이재봉, 토론: 오현석)', '일본 근대문학과 외부의 언어: 다니자키 준이치로 문학의 역동성.(발표: 이한정, 토론: 임상민)', '프랑스어로 표현된 아프리카 문학: 알페와 하브 메데브의 『탈리스마노』에 나타난 구술성과 문자성 연구.(발표: 김미성, 토론: 김용규)'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논문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제19회 인문주간 인공지능시대의 인문학
- '인공지능시대, 인문도시 창원을 열다'



인문학연구소 인문도시 사업단은 2024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19회 인문주간 인공지능시대의 인문학 '인공지능시대, 인문도시 창원을 열다' 행사를 개최하였다. 창원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인공지능과 인간, 인문학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가 창원과 부산 곳곳에서 펼쳐졌다.

인문학연구소 세계문학과 트랜스글로시아 연구팀 초청특강



인문학연구소 세계문학과 트랜스글로시아 연구팀은 2024년 10월~11월에 초청특강을 2회 개최하였다. 10월 25일에는 경희대학교 일본어학과 손지연 교수(글로벌 류큐·오키나와연구소 소장)의 '오키나와 문학의 고유성과 세계성', 11월 29일에는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소영현 교수의 '월드링(worlding) K-문학, 한국문학 번역의 정치'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2024 가을 <희망의 인문학>



<희망의 인문학>은 소외된 이들을 직접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로,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 소외 계층을 위해 기획하여 십여 년간 꾸준히 진행해 온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다. 2024년 가을에는 부산시 동구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11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시시대와 인간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희망의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였다.

인문학연구소 인문도시 사업단 학술대회
- '디아스포라의 목소리와 서경식'



인문학연구소 인문도시 사업단에서는 서경식 선생의 타계 1주기를 기념하여 2024년 12월 20일, '디아스포라의 목소리와 서경식'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효석 인문학연구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여행자가 되지 못한 순례자: 연극 <디아스포라 기행>을 둘러싼 이야기.(이종찬)', '디아스포라 지식인의 위치와 말년의 사유 양식: 아도르노와 사이드, 그리고 서경식.(김용규)', '미술을 '순례'한다는 것 - 서경식의 미술 순례 3부작'(최재혁), '디아스포라의 언어경험과 언어인식: 서경식을 중심으로.(서민정), 종합 토론(권영민, 이재봉, 형진)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점필재연구소

특강



일시	장소	행사명
2024.08.28.	인문관 교수연구동 209호	제11회 한국계몽주의특강 <근대 국어학의 성립과 훈민정음> (최경봉)
2024.10.10.	인문관 501호	계몽주의 특강 <로컬지식학과 대한제국기 계몽의 형성> (정석태)

학술대회



일시	장소	행사명
2024.08.29.	인문관 교수연구동 212호	대한제국기 계몽과 주체의 다성성(多聲性)
2024.10.11.	밀양문화원 대강당	佔畢齋 金宗直 先生 <譯註 梅堂稿 출간 기념학술대회>
2024.12.20.	밀양시립도서관 시청각실	<조선 중·후기 유가 지식인의 동향과 台溪 河潛>
2024.12.27.	밀양시립도서관 시청각실	점필재연구소&동양한문화회 공동학술대회 <일제강점기 유교지식인의 만주망명에 대한 생활사적 탐색>

2024년 <점필재인문고전 아카데미> 행사 개최



일시	장소	행사명
2024.09.26. ~2024.11.28.	밀양향교 유희학관	시대의 스승이 걸어간 두 길: 점필재 김종직과 매월당 김시습(1강~12강) (정출헌)

◆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4학년도 비교과 프로그램 「피란수도 부산유산 홍보 콘텐츠 공모전」 운영

· 운영기간 | 2024.10.28.(월)~2024.11.29.(금)(5주 운영)

2022학년도 비교과 프로그램 학생 공모전 수상작을 실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총 5팀이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공동주최 학술심포지엄] 트랜스(trans-): 지역-텍스트-지도의 교차적 상상력을 위하여

- 행사일시 | 2024.10.25.(금) 13:00-18:00
- 공동주최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요산김정한문학관, 부산대학교 트랜스-로컬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원
- 장 소 | 부산대학교 시습관(인문관 501호)



1. 요산문학지도 작업의 수행성
발표: 이재봉(요산김정한문학관/부산대 국문과)
토론: 박소윤(부산문화재단)
2. 인천이 그려보고 있는 문학지도
발표: 이희환(인천대 인천학연구원)
토론: 최학림(요산김정한문학관)
3. 에도시대 가상현실을 꿈꾸는 여행 모빌리티
발표: 손정아(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토론: 김경연(부산대 국문과)
4. 경계의 문학, 문학의 경계: 식민지 작가의 서울-동경 연결
발표: 박수연(충남대 국문과)
토론: 서재길(국민대 한국어문학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3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및 기념식

- 행사일시 | 2024.12.06.(금) 13:30
- 행사장소 | 부산대학교 박물관 나래관



연구소 설립 30주년을 맞아 학술심포지엄 및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대학과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모색하고자 '대학과 연구소'라는 주제로 한국, 일본, 대만의 학자들이 참석하여 연구소 운영과 사회적 역할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1부 학술심포지엄과 2부 30주년 기념식으로 진행되었다.

MOU체결

- 일시 | 2024.12.06.(금)



고려대학교 독일어권문화연구소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가 연구와 교육을 위한 제반 과제 및 사업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

「부산대학교 80년사 편찬사업」 수행

- 일시 | 2024.12.06.(금)

부산대학교의 80년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의 100년 도약을 내다보는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편찬위원장 이하 6명의 편찬위원과 2명의 편수원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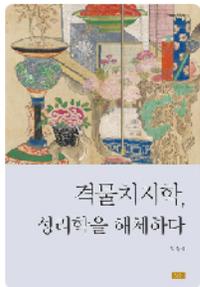
제67회 부산시 문화상 수상 : 이근열(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부산 최초 방언 박사인 연구소 소속 전임연구원 이근열 연구원은 부산 방언의 대중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투리의 미학', '부산 사투리의 이해' 등 저서를 출간하고, 부산한글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문화 발전과 한글 진흥에 이바지하여 부산시 문화상을 수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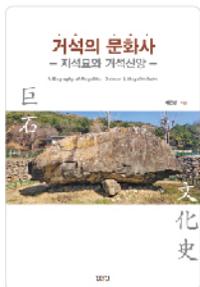
신간소개



소호당 김택영과 송도인의 발견
 김승룡 / 미다스북스 / 2025-02-28
 소호당 김택영을 다룬 책이다. 소호당 김택영은 한국 고전 지성사를 아우르는 지식인으로, 저자는 '하나의 도전'이었다고 소회를 풀어놓는다. 고려에서 조선 그리고 한말까지, 대한민국 땅과 북한의 개성 그리고 중국의 남통까지. 시공간을 뛰어넘어야 했다. 연암 박지원, 익재 이제현을 비롯한 우리 지식인을 비롯하여 안중근과 같은 지사들의 삶을 글로 썼다. 홍명희, 이승한 등에게 시를 남겼고, 하경진, 문박, 황원 등의 지식인들과 글을 주고 받았다. 이 책에는 이렇게 '하나의 도전'이라고 불릴 만큼 눈앞이 아찔해질 정도의 '휴먼텍스트', 소호당 김택영을 소개하고 파고들면서 '기분이 좋았다고 털어놓는 저자의 시선이 고스란히 담겼다.'



격물치지학, 성리학을 해체하다
 박정심 / 심산 / 2025년 1월
 근대 이후 한국에서는 서양철학의 학문적 범주와 개념을 중심으로 철학적 사유를 하게 되었다. 근대는 번역어의 시대였다. 전근대의 유학적 사유와 개념은 더 이상 세상을 해명하는 기제가 될 수 없었으니, 새로운 서구적 근대를 수용하고 번역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졌다. 근대 격물치지와 격물치지학은 그 격변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근대는 조선왕조의 성리학에서 근대의 서구 문명으로 사유와 학문, 그리고 삶의 양식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면, 전근대적 사유와 세계 인식이 근대라는 프리즘을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되었으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유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려는 근대 지식인의 고뇌도 엿볼 수 있다.



거석의 문화사 - 지석묘와 거석신앙 -
 배진성 / 진인진 / 2025
 『거석의 문화사』는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거석 기념물인 지석묘의 상석을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인식되고 활용되어 왔는지를 다룬 심층 연구서다. 본 연구는 고고학적 자료가 단순히 과거의 유물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까지 이어지는 문화적·사회적 의

미를 탐구한 데 의의가 있다. 단순히 학술연구서에 그치지 않고, 일반 독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지향하고 있으며 특히 지석묘 상석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적·문화적 사례들은 독자들이 고고학적 유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만구집 3
 김홍영, 정석태 / 도서출판 점필재 / 2024



학술지 『코기토』 104호
 인문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등재학술지 『코기토』 104호(2024.10.31.)가 발행되었다. 104호의 기획 주제는 '20세기 서구의 반란과 폭동, 그 양면상'으로 기획 논문 2편을 포함하여 총 7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학술지] 한국민족문화 89집
 2024.11



[학술지] 로컬리티 인문학 32호
 2024.10